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선(line)과 원(circle)

박 종 화

'매크로코즘(Macrocosm)'과 '마이크로코즘(Microcosm)'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원으로 '큰' 또는 '대규모의' 를 뜻하는 'macros', '아주 작은' 또는 '극소의' 를 뜻하는 'micros' 와 '질서' 또는 '세계' 를 뜻하는 'kosmos' 의 합성어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에 근원을 둔 이론으로 '우주(cosmos)'의 모든 단계, 즉 가장 큰 단위인 우주부터 원자보다 작은 단위의 것들까지에는 동일한 양식이 반복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해 공간(宇)과 시간(宙)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서는 공통된 원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큰 것에서 작은 것들을 터득할 수 있으며 또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자, 집행하는 자,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세력 갈등을 거듭하며 누가 더 우월한 지위를 점령하는가를 기준으로 성공을 가늠해왔다.

허나 이는 결코 사회적 성공에 불과할 뿐 개인적 성공을 가늠하는 표준이 되지는 못한다. 개인적 성공은 사회적 성공과 평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성공을 '선(line)'으로 본다면 개인적 성공은 '원(circle)'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인적 성공은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 개인적인 성공은 물질적으로는 가늠하기 힘들다. 삶의 흐름 안에서 무엇을 깨우치고 행동으로 옮긴 후 시간이 경과되면 인간본성이나 다른 요소로 인해 그 깨우침에 갈등이나 의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깨우침은 몸에 배게 된다.

깨우침의 직전을 시발점으로, 그리고 시간을 추진제로 가정한 전제하에 이때 이 개인은 '원'을 한 바퀴 돌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만 '원'을 한번 완주했다고 똑같은 시발점에 도달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그렇지가 않다. 한 깨우침이 몸에 배거나 아니거나 일단 시행착오를 거친 후 다시 얻는 깨우침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 아름답지만 어려운 시를 낭독할 때 한번 읽은 것과 여러 번 읽은 후의 이해도가 다르고 또 젊을 때와 나이가 들어 읽은 후 영감이 다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필자가 말하는 '원'은 이차원 현실에서만 존재하는 원이 아닌 무한차원에서 존재 가능한 계속되는 '원' 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성공은 깨우침을 원동력으로 '원'을 깊이 탐구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늠하는 비물질적 기준은 지속적인 깨우침을 통해 얻는 자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역설(paradox)'은 왜 본능을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기능에 자부심을 지니고 다른 동물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인간이 본능을 중요시하는 사회디자인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와 개인적 성공의 동기를 각각 생존과 깨우침에서 얻는 자유라고 했을 때, 생존은 본능에 속하고 깨우침은 이성에 속하지 않는가?

예컨대 우수한 과학자와 음악가가 같이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과학자가 전문용어를 구사하며 지금 자기가 연구 중인 이론을 논한다면 음악가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할 것이고 반대로 음악가가 전문용어를 구사하며 음악의 섬세한 뉘앙스를 설명하려 한다면 과학자도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의 내용은 이성적일지 모르나 의사소통의 방법은 아주 원시적이며 본능적으로 변하게 된다. 마치 이솝의 '여우와 학' 이야기 꼴이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양쪽이 맛있게 수프를 음미하려면 공통되는 그릇을 찾아야 한다. 이때 둘 다 개인적 발전에 공이 깊다면 전문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서로의 '도(道)'에 대해서 논할 것이며 그 때 비로소 둘 다 풍요로운 지혜의 나눔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도(道)'는 '통(通)'한다 는 표현처럼 '매크로코즘(Macrocosm)'과 '마이크로코즘(Microcosm)' 역시 하나를 터득하면 만사를 터득할 수 있다는 원리를 주장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원'이며 '원'의 모양이 다차원적으로 일그러져 있을수록 이 원리를 터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道)'를 터득한 사람들은 항시 변하는 우주와 함께 자기 특유의 '원'을 자유자제로 통제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로서는 '선' 만 보일 뿐, '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원'은 지금 어떤 모양인가?

〈서울대 교수·피아니스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칼럼

학생독립운동의 정신 되새기자

유 영 근

지난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평범한 주말로 무심코 넘어갔을 지도 모르겠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국인 학생이 이에 항의하다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양쪽 학생들이 일제히 가세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일제의 수탈과 멸시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라났던 한국인 학생들과 일제 식민권력의 우산 아래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본인 학생 사이에는 항시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있었으며 이것이 쌓여 오다 결국 폭발해 버렸던 것이다.

나주역 사건 후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간의 충돌은 계속되었으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11월 3일이었다. 이날 광주역에서 광주고보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한 데 이어 광주농고, 전남공립사범학교 학생과 합류하여 가두시위를 감행하였다.

당시 신문은 11월 3일의 시위를 3·1운동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보도했으며 여론이 비등해지자 총독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도를 금지시켰다.

이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해방과 식민지 노예교육, 민족동화교육의 철폐를 위한 학생들의 저항은 맹휴투쟁에서 한 단계 전진하여 집단적인 가두투쟁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11월 12일에는 학생들이 2차 시위를 감행하여 일제의 탄압과 불공평한 처사를 비난하고 구속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했다. 2차 시위는 단순한 집단적 가두투쟁의 단계를 넘어 정치투쟁·대중투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인 항일민족운동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2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파급되어 읍·면 단위 지역 학교까지 확산되었고 보통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투쟁의 형태도 시험거부, 백지동맹, 동맹휴학, 격문살포, 교내시위, 가두시위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일본식민지 지배권력과의 정면 충돌을 통한 민족의 독립 획득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학생들의 투쟁은 해외로까지 파급되어 만주, 일본을 비롯하여 연해주, 미주지역까지 호응하여 명실공히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민족운동으로 승화되었다.

우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3일 광주시내 고등학생 및 교사와 교육감 등 내빈들을 초청한 가운데,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후손회원분들을 모시고 학생독립운동 참가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제8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독립운동활동을 하셨던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원을 대표하여 최승호 동지회 부회장님께서 학생과 시민을 앞에 두고 기념사를 낭독하셨다.

83년 전 학생독립운동 활동 당시의 치열한 상황을 회고하시던 대목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숙연해졌고, 우리 땅 독도를 두고 일본과 영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정부를 걱정하며 지난날의 제국주의가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하시던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과 학생들은 비단 학생독립운동뿐 아니라 호남의병 등 일제에 대항하였던 우리 지역의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며, 각자의 본분과 사명을 바르게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

의료 칼럼

몸살감기로 착각 쉬운 쯔쯔가무시병

김 명 수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감염되어 걸리는 병이다. 이 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유충이 덤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옷에 붙은 뒤 피부를 물어서 전염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진드기 티푸스, 덤불티푸스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어로 털진드기를 뜻하는 쯔쯔가무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일본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951년 한국전쟁 중 임진강에 주둔 중인 영국군 부대에서 2명의 병사가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처음 보고되었다. 외부 활동이 많은 40~80대의 환자가 많으며, 9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병원균의 매개체인 진드기 유충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추수, 등산, 벌초 등의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한, 근육통, 두통,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는 의식 저하, 경련, 호흡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병 2~6일경에 가려움증이 없는 붉은 반점이 얼굴, 몸통에서 발생하여 점차 팔다리로 번지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진드기에 물린 자리는 붉게 부풀어 오르다가 물집처럼 잡힌 뒤 검붉은 색의 가피(딱지)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까만색으로 마른 딱지가 자리잡게 되는데, 이것이 쯔쯔가무시병 환자의 약 50~80%에서 발견되므로 가장 특징적이고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딱지는 통증이 없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어 환자 자신이 볼 수 없는 등이나 겨드랑이 머릿속 사타구니 등에 있는 경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쯔쯔가무시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진료실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쯔쯔가무시병의 확진은 혈액검사로 쯔쯔가무시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며 대개 신증후출혈열과 렙토스피라 검사와 동시에 실시한다. 쯔쯔가무시병에 걸렸어도 첫 항체검사에서 음성의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 항체검사를 다시 하기도 한다.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증 또는 간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간혹 간기능 이상이 있다고 하여 원인을 찾다가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쯔쯔가무시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아지쓰로마이신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면 2~3일 내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며 대부분 1주일 내로 증상이 거의 소실된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주 이상 발열 및 근육통으로 고생하게 되며 뇌수막염, 난청, 이명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검은 딱지나 붉은 반점이 나타나지 않거나 쯔쯔가무시가 유행하는 시기가 아닐 때 발병한 경우는 감기 등으로 오인하기 쉽고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빨리 진단하면 항생제 투여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으나 치료시기가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에서 합병증의 발생이나 사망률이 높다.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하는 백신은 없으며, 병이 완치된 뒤에도 진드기에 다시 물려 재발병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다. 쯔쯔가무시병 유행 시기에 추수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옷이나 몸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 긴 옷을 입고 귀가 후 몸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병원 내과원장〉

한국 인삼 종주국 무색…국제시장 주도 근본대책 필요

우리는 소위 종주국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축구 종주국 영국, 야구 종주국은 미국이다. 그런데 영국은 19차례 열린 월드컵 중 단 한 번만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미국 야구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결승조차 오르지 못했다.

왜 종주국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자타공인 인삼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삼종주국이라는 표현이 부끄러운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팔린다는 인삼이 외국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삼은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고작 1~3% 수준뿐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외국의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인삼 종주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인삼 수확철인 10월에 각 지역에서 열리는 인삼축제만 해도 모두 7건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 미국, 중국, 캐나다 같은 인삼 후발주자들이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자체마다 연구소 따로, 조합 따로, 상품브랜드 따로, 심지어 축제까지 따로 하니 무슨 경쟁이 되겠는가.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인삼 종주국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진정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일만한 획기적인 국제시장 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우수 홍삼 시상식 같은 것을 만들어 제품 생산 업체를 더 길러내고 육성해 줘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역마다 흩어져서 제각각 치르고 있는 인삼축제도 현실성있고 내실있게 통폐합하거나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김숙자·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 설

영광원전사태 주민 불안 해소 시급하다

영광 군민들이 영광원전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히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광원전에 짝퉁부품이 납품되는 등 각종 비리와 함께 고장이 잇따르면서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영광군 홍농읍 주민 500여 명은 20일 영광원전 앞에서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결의대회'를 열고 '원전 가동 중단' '허수아비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원전을 상징하는 상여를 메고 정문 우측 철제 펜스 10여m를 무너뜨린 후 원전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 원전 청원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주민들은 또 정문 좌측에서 펜스 5m가량을 헐고 또다시 원전으로 진입하다 경찰에 저지 당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트랙터 등을 앞세우고 원전 3km 앞 도로에서 원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런 통에 출근 시간이 1시간 가량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직원들의 출근을 막고 원전 진입을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주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데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사항도 뒤늦게 알려지는 등 원전의 일방적 처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 탓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전에 거액의 뒷거래와 함께 10년이나 짝퉁부품이 납품됐는가 하면 3호기에 이어 4호기마저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다. 원전안전위원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고, 중요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주민들도 과격 행동으로 나설 게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것이다.

관광버스마저 가짜 경유 사용하다니

등유에 첨가물을 넣은 가짜 경유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다중을 싣고 운행하는 관광버스까지 가짜 경유를 사용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가짜 경유 판매업자 7명은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에 유압작동유, 세탄부스터 등을 첨가해 300만ℓ, 43억 원 상당을 화물차주와 관광버스 운전자 등 101명에게 팔았다고 한다. 비용을 제외하고 챙긴 액수만도 6억여 원에 이른다. 불법 판매상 가운데는 주유소 업자 3명이 주동이 돼 음성적인 거래처를 찾기에 용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장성군 남면 등지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해 오면서 화물차주 등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주 등이 가짜 경유인지 뻔히 알면서도 장기간 서슴없이 구입한 건 등유가 경유보다 ℓ당 400원씩 싸다는 데 있다. 15t 규모의 덤프트럭 1대를 한 달간 운행할 경우 200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주들은 이도 모자라 자치단체에 ℓ당 330원의 유가 보조금을 신청, 모두 6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한다. 불법에 비리까지 그야말로 파렴치한이나 다를 바 없다.

특히 단체관광에 이용되는 관광버스 5대도 가짜 경유를 주입하면 연료 윤활성이 떨어져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제 관광객들이 안전여행을 위해 진짜 경유를 쓰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짜 경유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달리는 흉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다. 당국은 주유소 업자 등 불법 판매상과 관광버스, 화물차주 등에 대해 면허 취소는 물론 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 유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이대로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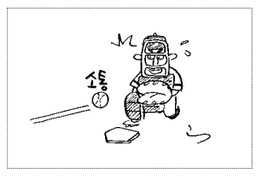
無 等 鼓

FA와 시대 흐름

프로야구 2013년 프리 에이전트(FA) 시장이 막을 내렸다. 하위권들의 전력보강 의지와 신생구단 NC의 효과가 맞물려 그 어느 해보다 올 FA시장은 뜨거웠다.

이번 FA시장의 특징은 젊은 가능성보다 베테랑들이 상종가를 쳤다. '나이'가 아닌 '경험'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LG는 삼성 투수진의 맏형 역할을 했던 정현욱의 '경험'과 '리더십'을 높이 샀다. NC는 해태 출신 노장 이호준을 잡았다. 그는 SK에서 4번 타자이자 후배들을 잘 이끌어 김경문 감독의 눈에 들었다. 두산은 4년동안 롯데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홍성흔을 영입했다. 지난 2009년 두산을 떠나기 전에도 더그아웃 분위기 메이커 였던 그를 두산은 일찌감치 리더감으로 낙점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KIA는 롯데 김주찬을 50억 원에 데려와 2013 시즌 우승에 대한 호남팬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이용규와 함께 역대 최강의 테이블 세터진을 구축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내년 시즌 호랑이들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변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확보한 280여억 원을 써보지도 못한 한화는 단 한명의 FA 충원을 하지 못해 미스터리로 회자된다.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 김응용 감독과 김성한 수석코치에 대한 '반 해태 정서' 때문에 선수들이 더 많은 돈의 유혹에도 타 팀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과거 강한 카리스마의 대명사였던 해태식 지도방식에 대해 선수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야구계 주변의 이야기일 뿐이다. 과거에는 강력한 통제와 카리스마로 V9의 신화를 이뤘지만 이제 그라운드에서도 소통이 최고의 덕목이 됐다는 것이다.

8개 구단 감독들이 팀의 리빌딩을 위해 찾은 최적의 선수는 기량과 함께 소통과 귀가 열려있어 팀 분위기를 아우를 수 있는 선수인 셈이다.

이번 대선도 FA에서 처럼 뛰어난 기량과 함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님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국민들의 낙점을 받지 않을까?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